



# 제26차 중·일·한 산업보건학술집담회 참관기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강숙



이강숙 교수

2016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제26차 산업보건학술집담회가 열렸다. 25차는 2015년 서울 ICOH에서, 24차는 2014년 후쿠오카 ACOH에서 함께 개최하여 4년만인 올해 단독으로 열려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 기뻐다. 북경 하늘은 미세먼지로 뿌옇고 차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 왠지 답답함이 느껴졌으나 택시를 타고 한시간쯤 들어가니 멋진 중국 고유의 아치모양을 한 호텔이 나타났다.

도착하자마자 로비로 내려오니 아직 많은 분들이 도착하지 않아 한산한 가운데 워크숍을 시작하였다. 건강행위에 대한 6연제가 준비되었으며 한국의 경상대 유학생인 중국인 니 양이 직장인의 운동지속행위에

## The 26th China-Korea-Japan Joint Conference on Occupational Health



# The 26th China-Korea-Japan Joint Conference on Occupational Health



개회식



발표장면



좌장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산업의대 Prof. Fujiki 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면의학에 대한 연구, Dr. Cui 는 산부인과의사에서의 근골격계질환에 미치는 사회 심리적요인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필자(이강숙 교수)는 콜센터여성의 감정노동과 흡연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였고, 산업의대의 대학원생 Ying은 일본에서의 전자담배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에 대한 인식조사를 발표하여 흥미롭고 활발한 토의와 질의응답이 있었다.

다음날 한국의 이세훈교수, 중국의 Prof. Wang, 일본의 Prof. Itani 등 각국대표의 축사에 이어 노재훈 교수의 “한국 중소기업의 산업보건서비스”, 일본의 Prof. Itani 의 “일본 중소기업의 작업조건개선”, 중국 Dr. Chang 의 “Mechanism of oxidative stress exposure to particular matter” 등 Keynote Speech 가 진행되었다. 이번 학회는 한국측 35명, 일본측 29명 그리고 중국측 38명으로 총 102명이 등록하여 아마도 역대 가장 적은 인원이었다고 한다.

구연포스터는 16개의 연제를 각 연제당 1분30초 동안 슬라이드로 소개하는 발표시간을 가졌다. 발표 이후에 포스터 앞에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때 포스터상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다.

점심시간에는 Steering Committee Meeting을 하였으며 중국측에서 학술집담회 이름을 동아시아 산업 보건학술집담회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고 그대로 3개국이 돌아가면서 개최순으로 표기하





포스터 발표

기로 하였다. 2013년 중국의 개최 예정지인 청두에서 지진과 조류독감으로 취소되어 내년(일본, 삿포로)이후 2018년, 중국에서 한번 더 하기를 요청하였으나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오후에 구연발표는 2개의 방에서 6개의 세션이 열려 27연제가 발표되었다. 독성학에서부터 산업보건 전문인력의 훈련까지 다양한 연구가 소개되었으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윤진하 교수는 우리나라의 특수직종인 대리운전자들의 폭행경험에 대한 연구를, 이완형 선생은 직업분류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차이를 소개한 연구가 흥미로웠다.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용준 학생은 기혼직장여성의 육아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여 여성 참가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얻었다.

저녁 만찬은 북경시내의 유명한 중식 전통가무공연 레스토랑에서 진수성찬으로 대접을 받았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전통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신비롭게 안내를 하였고 가면을 쓰고 나온 청년의 춤에 따른 형형색색 가면의 변화는 신기하였고 고유의 창극도 재밌었다. 베이징덕과 더불어 정말 많은 음식과 향이 진한 고풍주는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었다. 포스터상은 한국의 부산산업보건센터의 이미은 선생이 발표한 “산업장에서의 건강증진활동의 수행보고”와 일본의 오히라기섬 노동연구소의 Sano 선생의 “아프리카, 아라비아 및 중앙아메리카의 중소기업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 사례비교”가 선정되었다.

마지막날 심포지움은 산업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주제로 6연제가 준비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문찬석 교수가 일반인구에서의 카드뮴 섭취, 중국에서는 석면중과 규폐증에 대한 연구, 일본에서는 산업보건서비스에 대한 연구발표를 하였다. 2017년 5월 31일(수) ~ 6월2(금) 아름다운 일본의 삿포로에서 개최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작별을 하였다. 🍷



Banquet



저녁만찬

단체기념촬영

